

,





# 마태복음

: 마태, : 주후 60년경, : 역사, : 약 34년

: 유대인들. 임마누엘(1:23), 골고다(27:33),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기도(27:46) 등이 해석된 것으로 보아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지혜자들의 방문(2:1-12), 이방인의 병 고침(8:5), 이방인들의 심판(12:18), 대위임에 이방인들이 포함된 점(28:18-20) 등은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호소하는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마태는 갈릴리에 거주하던 유대인으로 레위라고도 불렸다(막2:14; 눅5:27-29).

: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의 도래

: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것

: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한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마2:2).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 주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신 사실을 잘 보여 주며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강조한다(5-7장; 13장; 24-25장).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즉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마23:37-39). 마태복음은 28장, 1,071절, 23,68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16장(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1:1) 이 구절은 첫 아담의 세대를 말하는 창5:1과 대조를 이루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임을 보여 준다.

: 1. 왕(5회), 2. 왕국(56회), 3. 하늘의 왕국(33회), :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1:22)  
: 유대인들의 왕(2:2), : “회개하라.”

## 제 1 장

### 왕의 계보

(룻4:18-22; 대상2:1-5; 눅3:23-38)

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 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  
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  
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  
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  
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  
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  
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  
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  
빌론으로 끌려가니라.

12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  
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  
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  
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  
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  
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  
지의 모든 세대가 열네 세대요, 다윗  
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열네  
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세대라.

왕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남(눅2:1-7)

18 ¶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  
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의  
로 말미암아 아이를 뱀 것이 드러나  
매

19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  
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  
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20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  
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22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  
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  
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24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  
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  
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25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  
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  
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 제 2 장

지혜자들이 왕을 보러 동쪽에서 올

1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유대의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시매, 보  
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  
렘에 와서

2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4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바,

6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7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서니라.

10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왕이 이집트로 피신함

13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 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14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무죄한 아이들이 학살됨

16 ¶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 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온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17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18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왕이 나사렛에 정착함(눅2:39)

19 ¶ 그러나 헤롯이 죽으매,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20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

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21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23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 제 3 장

침례자 요한(막1:2-8; 눅3:1-20)

1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풀이더라.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7 ¶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10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11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12 곧 손에 키클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왕이 침례를 받음

(막1:9-11; 눅3:21-22; 요1:29-34)

13 ¶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14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15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

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17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제 4 장

왕이 시험을 받음

(막1:12-13; 눅4:1-13)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상형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들어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3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5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6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

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8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9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없으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왕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함

(막1:14-15; 눅4:14-15)

12 ¶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14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15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17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왕이 네 어부를 부름(막1:16-20; 눅5:1-11)  
 18 ¶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1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21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22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 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왕이 큰 무리를 고침  
 (막1:35-39; 눅4:40, 6:17-19)

23 ¶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24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 제 5 장

왕의 산상 설교(눅6:20-26)

1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2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7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9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10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1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막9:50; 눅14:34-35)

13 ¶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15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왕이 율법을 성취함

17 ¶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됨

(눅12:57-59)

21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협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24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25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26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음속의 간음

27 ¶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신성한 결혼

(마19:9; 막10:11-12; 눅16:18)

31 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헛된 맹세 금지

33 ¶ 또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35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36 네가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네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37 오직 너희 의사 표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십 리를 같이 가라(눅6:29-31)

38 ¶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40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

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41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 리를 가며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눅6:27-28, 32-36)

43 ¶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45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제 6 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1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3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

(눅11:1-4)

5 ¶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7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10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빛을 용서 하옵시며

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보이는 바른 금식

16 ¶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17 오직 너는 금식(禁食)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18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눅12:33-34)

19 ¶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20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2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눅11:34-36)

22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23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

24 ¶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눅12:22-31)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하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하지 아니하시겠느냐?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 제 7 장

판단하지 말라(눅6:37-42)

1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2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